CBS ‘굿뉴스 투데이’ 작품상

<시사교양 부문>

‘한국 PD대상’ 특집·실험정신상 부문도 석권 3관왕

CBS가 ‘제20회 한국 PD대상’에서 3개 부문의 수상 명단에 이름를 올렸다.

28일 서울 등촌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 PD대상’ 시상식에서 CBS는 라디오 시사교양·특집·실험정신상 등 총 3개 부문에서 3명의 PD가 수상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 5분에 방송되는 ‘굿뉴스 투데이’의 손명회 PD가 시사교양 부문의 작품상을, 지난 1월 22일부터 5일간 방송된 ‘특별기획 5부작-생과 사의 갈림길 5분’의 박철 PD가 특집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 CBS를 포함해 9개 방송사가 연합해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한 ‘대한민국 라디오 공동 프로젝트-라디오는 나눔입니다’가 실험정신상 부문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시사교양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손명회 PD는 “감동은 사라져 가고 변명만 늘어가는 세상에 희망과 온정을 알리고 싶었다. 우리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나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며 “11년 동안 이어진 장수프로그램인 만큼 선배PD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집 부문 작품상을 받은 박철 PD도 “응급실은 한밤중에 몇 명의 환자가 올 줄 모르더라도 항상 최적의 의료 조건을 갖춰야 한다” 며 “하지만 돈의 논리, 이윤의 논리로는 이런 조건을 갖출 수 없다. 이번 수상으로 의료 현실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방송을 제작하면서 몸소 느낀 점을 피력했다.

한국PD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 PD대상 시상식’ 은 방송문화 발전과 자유언론 구현을 위해 제정됐고 올해로 20년을 맞이했다.

김재윤기자 kjy7@cbs.co.kr

전문신문협 김시중 회장 재선임

한국전문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제44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23대 회장에 김시중(한국섬유신문 발행인·사진) 현 회장을 회원 만장일치로 재선임했다.

데일리 노컷뉴스

www.dailynocutnews.co.kr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7-1 기독교 방송 18층
대표전화: 02) 2650-1100 FAX: 02) 2650-1119

발행·편집·인쇄인	홍	원	기
기획·편집 이사	이	정	희
편집국장직대	이	기	창
광고본부장	홍	재	서
독자사업국장	정	태	인
경영기획실장	김	상	철

기사제보 02)2650-1136
광고문의 02)2650-1111
사업문의 02)2650-1110
등록번호 서울가 00061

日 ‘인기짱’ 호스티스 7명 그룹 결성

앨범 발표하고 데뷔 콘서트

일본에서 가장 큰 환락가인 도쿄 신주쿠의 가부키초 술집에서 일하는 ‘인기짱’ 접대부 7명이 그룹을 결성, 음반을 내고 데뷔해 화제다.

‘캬바☆토라 7 Stars’라는 이름의 이 그룹(사진)은 27일 도쿄 긴자로망티코에서 데뷔 앨범 ‘캬바토라’ 발매를 기념한 미니 라이브 공연을 열고 멤버가 직접 작사한 오리지널곡 등 5곡을 열창해 단골손님까지 가세한 500여 명의 관객을 매료시켰다. 4월 가부키초 탄생 60주년을 기념해 결성한 ‘캬바☆토라 7 Stars’의 멤버들은 일본 전국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술집 접대부 가운데 모두 최정상급으로 이들의 연수입을 합치면 무려 2억5000만 엔(한화 약 22억원)에 이른다.

멤버들은 무대에서 “손님 1명당 10장씩 사 주었으면 좋겠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들어주기 바란다” “접대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즐겨 불렀으면 좋겠다” “함께 노래방에서 부르고 싶다” 등 특유의 애교 넘치는 발언으로 행사장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데뷔 앨범 ‘캬바토라’는 일본 굴지의 음반회사 유니버설뮤직을 통해 13일 출시됐다. 연합뉴스

비리와 구태의 진풍경

아침카페

한용상 (언론인)

이명박 정부의 새 내각 구성이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어쩌면 이럴 수가! 국민을 경악케 했다. 15명의 장관 중 3명이 취임도 전에 이미 탈락했다. 청문회를 보면 나머지도 거의 온전한 적격자가 없어 보인다. 속속 드러나는 추악한 진풍경이 역겹다. 이런 집단이 나라를 관리하면 선진 일류국은커녕 도둑 공화국을 만들고야 말 것 같다.

한나라당 자체의 김용갑 의원도 지적했듯이 새 내각은 흡사 비리백화점이다. 서민들은 듣도보도 못한 비리신상품도 쏟아져나왔다. 교육비 이중 공제, 일본 국채 매입, 이중 국적, 병역의혹, 논문표절, 저서표절, 부당 건강보험 혜택, 미등기전매, 복부인 할아비보다 더한 거대한 부동산 투기꾼, 탈세, 탈루혐의 등 추태 백태다.

이들 장관 중 80%가 2~5채 이상의 집을 가졌고 20억 원 이상의 부를 가졌단다. 여기에다 막강한 권력까지 쥐어주어 보라. 국민이 입는 피해는 어떨까. 우려와 분노와 혐오를 넘어 슬프지 않은가.

무엇이 문제인가. 인재 풀이나 시스템의 결함 때문인가.

아니다. 이는 국가 운영 철학과 정신의 문제다. 대통령의 국가 경영 목표가 선진일류국이다. 멋지다. 하나 그가 선택한 주역들은 대부분 시대착오적 낡은 인물들이다. 국무총리와 인수위원장은 제5공 국보위 출신, 보건복지장관 후보는 신군부가 공포정치의 도구로 사용한 이론을 제공한 자. 또 ‘통일은 없다’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선택한 코미디. 얼마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단견인가. 여기서 볼 때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은 매우 절망적이다. 대통령은 선진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노 젓는 자들은 후진을 향해 용쓰고 있다. 대통령은 진주로 가고자 하는데 기차는 삼천포로 빠지는 격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라도 성서가 제시하는 신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히브리 민족은 가나안의 새 나라 건설을 향해 천신만고 이집트를 탈출했다. 피나는 투쟁의 여정 끝에 가나안이 내려다보이는 요르단강가에 이르렀다. 신은 모세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외에 이집트에서 나온 구세대는 한 명도 요르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새나라 건설에 낡은 시대, 낡은 사고를 배제 했다. 이는 예수께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고 한 말과 동일한 진리다. 우리의 역사를 보자. 군사독재정권 36년은 IMF로 종결됐다. 민주정권 10년도 지났다. 이제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켰다. 민주정권도 이미 묵은 술이라면 군사정권은 썩은 술이다. 신세대 새 인재는 얼마든지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묵은 술도 아닌 썩은 술을 새 부대에 담으려한다. 신이 보여준 역사 창조의 진리를 거역하는 것은 어리석다.

nuriys@hotmail.com

이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종합일간신문입니다

‘노컷뉴스’는 기존 무료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체 취재기자는 물론 CBS 라디오와 TV, 온라인 노컷뉴스 기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연예, IT 등 각 분야에 걸쳐 공들여 취재한 기사가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최대 배포망을 갖췄습니다

‘노컷뉴스’는 최대 배포조직을 이용하여 매일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그리고 주요 대학가를 대상으로 배포함은 물론 별도 배달조직을 이용하여 청와대, 정부청사, 국회, 법원 검찰 및 각 정당과 공공기관 및 주요빌딩 사무실까지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괌, 북경, 동경, 파리 등 세계 23개 주요 도시까지 매일 항공편으로 독점 보급하고 있습니다.

광고효과가 탁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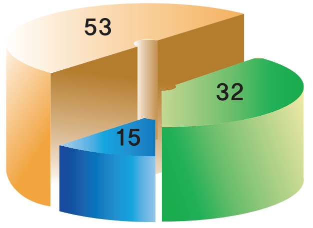
‘노컷뉴스’는 10~20대의 젊은 세대는 물론 30~40대 직장인 등 우리사회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핵심 독자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 독자입니다.

데일리 노컷뉴스
dailynocutnews.co.kr

노컷뉴스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택한 신문입니다

노컷뉴스 독자구성



대학교 졸업 이상　고등학교 졸업　학생　(A리서치 제공)

노컷뉴스 독자는 53% 이상이 대학교졸업 이상자들 입니다.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이 즐깁니다.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주 독자입니다.